



미 증시, 중국 지표 부진, 구인건수 서프라이즈에 약세

미국 증시 리뷰

31 일(수) 미국 증시는 중국 5월 제조업 PMI 부진으로 인한 경기 위축우려, 미국 4월 JOLTs 구인이직건수 서프라이즈로 인한 긴축 우려로 하락출발했으나, 6월 금리인상을 건너될 가능성을 언급한 연준 이사의 발언에 낙폭 축소 마감. (다우 -0.41%, S&P500 -0.61%, 나스닥 -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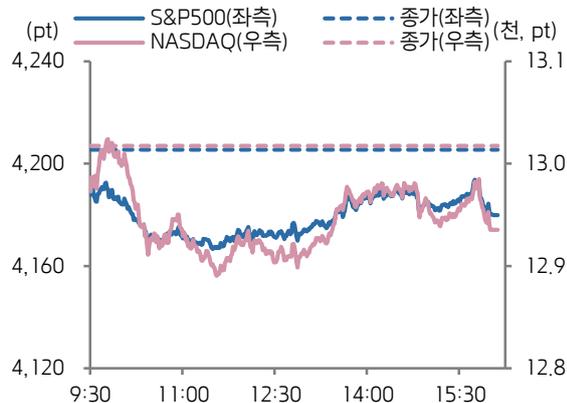
미국 4월 JOLTs 구인이직건수는 1,010.3만건(예상 940만건, 전월 974.5만건)로 4개월만에 재차 증가하며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해고건수는 3월 184.5만건에서 158.1만건으로 감소, 실업자 대비 구인건수 역시 3월 1.66배에서 1.79배로 상승. 숙박 및 외식 서비스는 전월 122만건에서 114만건으로 감소한 반면, 무역 및 운송 전월 143만건에서 176만건, 금융업 47.9만건에서 51.3만건, 의료서비스 19.3만건에서 209.7만건, 건설 31.5만건에서 38.3만건 등 증가. 집계측은 "JOLTs 보고서의 응답률 저하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 "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해고가 이뤄지면 매우 짧은 시간 내 채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

중국 5월 제조업 PMI는 48.8(예상 49.4, 전월 49.2) 기록하며 기준선 및 예상치를 두달 연속 하회, 작년 12월 이후 최저치 기록. 집계측은 "시장 수요와 생산 활동이 모두 둔화하고 있으며 원재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

연준 부의장에 지명된 필립 제퍼슨 연준 이사는 긴축 효과가 지연되어 나타나며 올해 하반기 지출과 경제성장이 추가로 둔화될 것을 근거로 6월 금리 동결 및 7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 "다가오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한다는 결정이 최종금리에 도달한 것이라고 해석되면 안 된다", "사실상 다음 회의에서 금리인상을 건너 뛰는 것(skipping)은 위원회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긴축을 할지 결정을 내리기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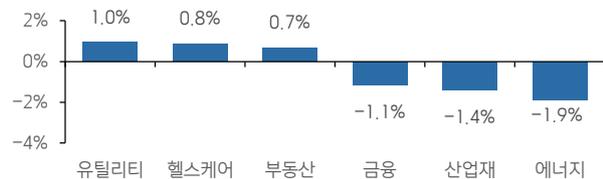
이날 공개된 베이지 북에서는 고용은 증가했지만 둔화되었고 일부 지역에서 소비자 대출 연체율이 증가했다고 언급. "소비자 지출이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적이거나 더 높았고 레저 및 접대 서비스 지출이 증가했지만 향후 성장 전망이 나빠졌다"며 "상업용 건설과 부동산 활동은 전반적으로 감소했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적이거나 긴축되었다"고 분석. 금융과 은행 핵심 지역인 뉴욕 연은은 "지역은행들은 지속적으로 신용조건이 타이트해지고 있으며 대출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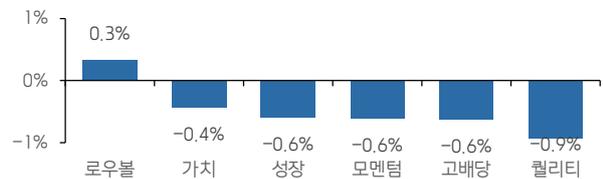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77.12	-0.32%	USD/KRW	1,325.81	+0.06%
코스피 200	339.12	-0.7%	달러 지수	104.23	+0.06%
코스닥	856.94	+0.64%	EUR/USD	1.07	-0.01%
코스닥 150	1,308.65	+1.17%	USD/CNH	7.12	-0.05%
S&P500	4,179.83	-0.61%	USD/JPY	139.33	-0.01%
NASDAQ	12,935.29	-0.63%	채권시장		
다우	32,908.27	-0.41%	국고채 3년	3.440	-11.5bp
VIX	17.94	+2.75%	국고채 10년	3.520	-13.3bp
러셀 2000	1,749.65	-1%	미국 국채 2년	4.403	-4.7bp
필라. 반도체	3,453.18	-2.71%	미국 국채 10년	3.643	-4.4bp
다우 운송	13,709.74	-1.83%	미국 국채 30년	3.861	-2.9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218.04	-1.71%	WTI	68.09	-1.97%
MSCI 전세계 지수	646.37	-0.92%	브렌트유	72.66	-1.2%
MSCI DM 지수	2,800.56	-0.89%	금	1982.1	+0.25%
MSCI EM 지수	958.53	-1.22%	은	23.59	+1.5%
MSCI 한국 ETF	62.78	-1.04%	구리	363.7	-0.71%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04% 하락, MSCI 신흥국 ETF 는 0.93% 하락. 유렉스 야간선물은 0.24%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319.9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7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 약세로 인한 국내 반도체 및 AI 관련주 투심 약화 여부 2. 장전 발표 예정인 한국의 5월 수출 결과가 장중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 3. 위안화 약세로 인한 중국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 변동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단기적인 증시 뉴스플로우의 중심에 있는 부채한도 상향조정안은 그간 반대 목소리가 높았던 하원 운영위원회에서 통과(찬성 7 vs 반대 6)되면서 오늘 표결을 앞둔 하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 이 영향으로 5월 초 170bp 선을 상회하며 역대급 수준으로 치솟았던 미국의 1년물 CDS 프리미엄이 31일 현재 54bp 선까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 참여자들 대부분이 부채한도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는 양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점은 위험선호심리를 자극시킬 만한 요인이나, 한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연준 긴축, 경기 등과 같이 기존의 매크로 변수에 대한 경계심리가 공존할 것으로 보임.

상반기 마지막 대형 이벤트이자 하반기 증시 방향성에도 영향을 주는 6월 FOMC의 경우,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시장 참여자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5월 중순 이후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 등 매파 인사들은 추가 인상을 해야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전일 제퍼슨 연준 부의장 지명자,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모두 6월 금리인상은 건너뛰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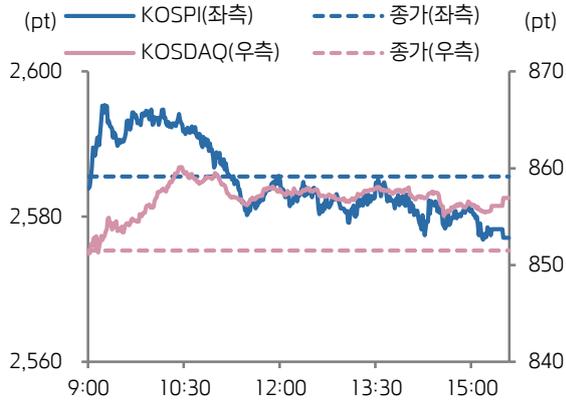
상기 두명의 인사들이 “중단”이나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건너뛰는 것”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은 6월 금리 동결하더라도 그 이후의 회의에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 시사. 이는 연준의 긴축 종료를 주가에 반영해왔던 주식시장의 조정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연준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데이터 후행적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 전일 공개된 연준 베이지북에서도 a) 대부분 지역에서 고용 증가세 둔화, b) 일부 지역에서 대출 연체 증가, c) 완만한 임금 상승 및 인플레이션 둔화 등을 언급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연준의 추가 인상 여지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

또 현재 위안/달러 환율이 연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위안화 약세가 심화되고 있는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올해 미국 등 선진국 경기 둔화의 완충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던 중국 경기 역시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 5월 중국의 제조업 PMI(48.8, 컨센 49.5)가 쇼크를 기록한 것은 신규주문(48.2, 4월 48.8) 하락에서 주로 기인한 만큼 수요 회복을 위한 정부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이 높긴 함. 다만, 단기적으로는 중국 경기 불확실성이 주요국 증시 전반에 걸쳐 지수 상단을 제약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중국 지표 부진 속 AI 및 반도체주 차익실현 물량 vs 2차전지주 매수세 유입 등 업종별 차별화가 진행됨에 따라 혼조세로 마감(코스피 -0.3%, 코스닥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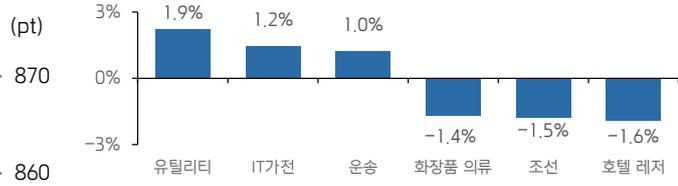
금일에는 부채한도 타결 기대감에도 차익실현물량으로 인한 엔비디아(-5.7%) 등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2.7%) 약세, 미국 및 중국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 부담 요인으로 약세 압력을 받으며 출발할 전망. 장전 발표 예정인 한국의 5월 수출 결과도 장중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5월 수출 블룸버그 컨센서스 상 -16.3%(YoY)로 전월(-14.2%)에 비해 감소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주력 업종들간 수출 실적 결과에 따라 증시에서도 해당 업종들간 주가 차별화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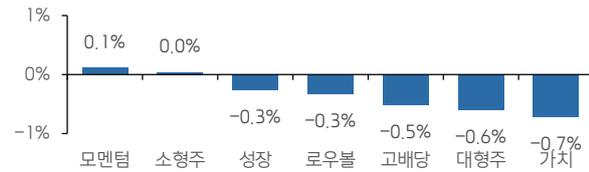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